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학교급 별 교육지원 방안 연구¹⁾

조영달²⁾, 김재근³⁾, 박윤경⁴⁾, 박선운⁵⁾

<요약>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급 별 교육지원 요구와 현황의 특성을 밝히고, 이에 따른 학교급 별 교육지원 방안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학교급 별 교육지원 요구를 파악하였으며, 동시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지원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런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학교급 별 지원방안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유치원 급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공동체적 소통과 상호이해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초등학교 급에서는 그 목표는 유치원 급과 비슷하지만, 교육 내용에서 언어교육 및 문화교육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학교 제도에서 소통과 상호이해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학교적응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중학교 급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자아정체성 강화 교육과 일반적 수준의 진로직업교육에 강조점을 둘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급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하며, 구체적 수준의 진로직업교육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교급 별 차별화된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 학생과 학교교육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다문화교육, 학교급별 교육자원, 소통과 상호이해, 정체성, 직업진로교육

-
- 1) 이 연구는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과제인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급별 교육지원 방안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임.
 - 2)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제1저자 (ydcho@snu.ac.kr)
 - 3)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신저자 (whisky02@snu.ac.kr)
 - 4) 청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realpyk1@cje.ac.kr)
 - 5) 서울대학교 대학원 (shoutsunny@hanmail.net)

1. 서론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속하게 이행됨에 따라 각 학교 급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2006년 약 8,000명 수준이었던 것이 2011년 36,773명으로 늘었으며, 그 분포는 학교급 별로 초등 74.1%, 중학교 19.6%, 고등학교 6.0%로 초등학교 재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은 상태에 있다. 이러한 비율은 초등학생들이 곧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진학할 것임을 고려한다면 조만간 비슷한 분포를 이룰 것으로 여겨진다(다음 장의 논의 참조). 동반 중도입국자 자녀 역시 2011년 통계로는 977명에 이르고 있다⁶⁾.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공교육의 역할은 최근 몇 년간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으며, 정책적인 지원도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교육부⁷⁾에 의해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종합대책이 마련된 이후, 2008년에는 그 대상을 유아로 확대하고 지원 내용 역시 언어, 인지, 사회, 정서적 측면으로 확대하였으며, 2009년에는 예비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학생 멘토링 사업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주류사회의 적극적 구성원으로 성장케 하려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⁸⁾.

그러나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이 구체화되고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문제이지만, 학교급 별로도 차별화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아직 수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지원 역시 특정 학교급과 특정 교육영역(문화의 이해와 언어 등)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2010). 현재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학생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은 계속해서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학교급 및 고등학교급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교육현장에서 나타날 이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화추이를 고려해서라도 각 학교급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지원 방안 제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리고 학교급 별 여건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경험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은 공교육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이다.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역시 이러한 발달단계와 여건의 차이에 따라 세밀하게 달라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다문화가정 학생

6) 다문화교육연구센터. (2011). 2011년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사업 중간보고서(p.11).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다문화교육연구센터(2011.9.8.). 서울.

7) 과거의 교육인적자원부와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를 모두 교육부로 통칭함

8) 김영화 (2011). 다문화가정 사업의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 다문화교육정책위원회 4차회의 자료(2011.8.12.). 교육과학기술부. 서울.

에 대한 교육지원 방안을 학교급별로 나누어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학교급 별 교육지원 요구는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2.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학교급 별 교육지원 현황은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3.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학교급 별 교육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문제에 따라, 먼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요구를 학교급 별로 파악하고,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전자가 다문화 교육의 수요자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면, 후자는 공급자 측면을 분석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양 측면의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학교급 별 교육지원 방안을 구상해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이 목적의 달성은 <연구문제 3>에 답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내용이 구체적인 정책 자체를 제안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급 별 구체적인 정책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길잡이 개념(guiding-concept)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이는 학교가 속해있는 지역과 환경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은 모두 상이할 수 있어 표준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일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이에 더하여 본 연구가 주로 문헌자료와 학교 인터뷰를 통하여 단기간에 이루어져 설령 표준적인 정책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제안할 수 있는 자료의 뒷받침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2. 선행 연구의 개관과 연구 방법

2.1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2010년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은 각 학교급에 총 36,378 명이 재학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이 중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34,338 명,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2,040 명이다⁹⁾. 이는 2007년 14,654 명, 2008년 20,180 명, 2009년 26,015 명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¹⁰⁾이다.

9)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 재학 현황은 파악되나 체류 또는 신분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현재 미취학 상태인 취학연령대 아동에 대한 파악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최근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각 학교급 별 재학생 수의 변화 및 유, 초, 중, 고등학교의 각 학교급 별 재학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가정 학생의 각 학교급 별 재학생 수의 변화는 <표 1>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009 년도의 유치원 재학생 수가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각 학교급 별 재학 인원수의 증감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각 학교급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은 파악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다문화가정 학생은 2009년 21,446 명에서 2010년 24,710 명으로 전년도 대비 5.2% 증가하였으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은 각각 전년도 대비 59.7%, 45.6%로 증가하였다. 이는 특히 중등학교 급에서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동시에,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순차적으로 진학하게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2010 년도의 각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의 재학 비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유 12.5%, 초 68.7%, 중 14.0%, 고 4.7%로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도 유 15.1%, 초 53.4%, 중 21.7%, 고 9.9%의 비율로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와 같이 최근의 학교급 별 다문화가정 학생의 재학 현황 및 그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등학교 다문화가정 재학생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비중이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면, 중등학교 급 다문화가정 학생의 재학생 비율 증가는 한층 가시화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들은 학생의 특성과 학교급 별 차이와 여건을 반영하는 다문화교육 정책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10)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1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안). p.1. 2011.2. 교육과학기술부. 서울.

표 1. 2009년 및 2010년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안은 비율

| | 구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
|------|---------------|------------------|-------------------|------------------|-----------------|------------------|
| 2009 | 국제결혼가정 자녀 | - | 20,632 (83.4%) | 2,987 (12.1%) | 1,126 (4.6%) | 24,745 (100%) |
| | 외국인 근로자 자녀 | - | 834 (65.6%) | 307 (24.2%) | 129 (10.2%) | 1,270 (100%) |
| | 계 | | 21,446 (82.4%) | 3,294 (12.7%) | 1,255 (4.8%) | 26,015 (100%)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계 |
| 2010 | 국제결혼 가정 자녀 | 4,298 (12.5%) | 23,602 (68.7%) | 4,814 (14.0%) | 1,624 (4.7%) | 34,338 (100%) |
| | 외국인 근로자 자녀 | 292 (15.1%) | 1,099 (53.4%) | 446 (21.7%) | 203 (9.9%) | 2,040 (100%) |
| | 계 | 4,590 (12.6%) | 24,710 (67.9%) | 5,260 (14.5%) | 1,827 (5.0%) | 36,378 (100%)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10)

2.2 선행연구검토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 방안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수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초등학교 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또는 초등학교의 특정 과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오은순(2010)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였고, 권민혁(2008)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초등체육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원진숙(2009)과 권순희(2008)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교육 및 국어교육의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급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물론 다문화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급 뿐만 아니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급에서도 실시된 연구들도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급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중등학교에 대한 연구물의 경우 그 수가 매우 적으며, 연구의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다. 연구 주제는 특정 과목 교과서의 분석이나 다문화가정 또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대한 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예컨대 조용태(2006)와 박광재(2007)는 다문화도덕교육 및 도덕수업과 관련된 연구를, 박현호·강운선(2008)은 다문화적 교육내용과 관련된 사회과 교과서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조정민(2010)은 세계사 교과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 급에 따른 교육 요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일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높아져 있지만, 학교 급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교육지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조영달·구정화·이혁규(2009)가 다문화가정을 유형별로 나누어 교육적 요구를 조사함으로써 유형별로 차별화된 교육지원 방안을 제안한 연구가 있지만, 이 역시 요구분석 수준이어서 학교급 별로 차별화된 교육지원방안을 연구한 경우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학교 급별 다문화교육 지원 방안 연구는 시작 단계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하여 각 학교급 별로 차별화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요구,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지원 방안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본 연구는 일종의 시도적인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다.

2.3 연구방법

2.3.1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급 별 교육지원 요구사항과 교육지원의 현황을 분석하여, 유·초·중·고등학교별로 그 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학교급 별 교육지원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현재의 교육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및 전국 시도 교육청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분석이 실시되었다.

먼저, 학교급 별 교육지원 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을 사용한 연구(조영달·박윤경·이정우, 2007; 조영달·구정화·이혁규, 2009; 이재분 외, 2009)를 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정부 기관에서 주도한 소수의 대규모 연구 외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요구를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조사한 연구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의 해당 연구에서 다루고 있지 않거나 부족한 사항을 보충하기 위하여 김혜숙·김관희(2008), 김정원(2005) 등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한편,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급 별 교육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2009 년과

2010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교육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각 학교급(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분석하였다. 2009년의 교육프로그램 수행 결과 보고서의 경우 분류 대항목과 전체 소요 예산만 작성되어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지원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2009년과 2010년 전국 시·도 교육청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계획서를 기초로 분석하되 실제 수행되었는지의 여부 및 전체적인 지원 현황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확인하였다.

2.3.2 분석방법

1) 기존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급 별 교육지원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집된 기존 연구물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분석(Meta analysis)이란 개별 연구들의 결과를 하나로 종합하는 수량적인 접근방법으로서, 개별 연구들의 결과를 동일한 측정치로 환산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분석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최근 들어 학문의 분야마다 영역이 세분화되고 많은 연구물들이 생산되는 추세에 맞추어, 어떤 연구문제에 대해 전체적인 결론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 의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신문승·강충열, 2009).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급별 교육지원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한 기존 연구물들의 경우, 바로 메타분석을 실시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연구별로 사용된 연구방법이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으로 서로 다르고, 둘째 해당 연구의 원자료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셋째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지원 요구사항을 분류하는 분석 틀이 각기 달랐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물들의 결과를 기계적으로 합산하여 빈도를 분석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선행 연구물들에 대한 정성적인 내용분석을 통하여 기존 연구가 지적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지원과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가 학교급 별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내용 분석에는 연구의 목적,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결과에 바탕을 둔 제안사항(정책 및 지원 요구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항은 학술적 연구가 지니는 중요 형식이기도 하지만,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야 다문화교육에서의 요구사항을 좀 더 심층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다음은 선행연구들을 정성적으로 내용분석하기 위한 주요 연구의 개략적 요약이다.

우선 이 연구의 주된 분석대상 자료의 하나인 조영달·박윤경·이정우(2007)의 연구는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

한 요구를 직접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해당 조사에서는, 선행 연구와 이론적 논의에서 주어질 수 있는 10 가지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중요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원방안에 대한 평균 점수를 계산하여 학교급 별로 교육지원 요구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재분 외(2009)의 연구는 학교에서의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주체들의 요구(우선순위 포함)를 조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학교급 별 요구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요구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양적 연구를 주로 진행한 위의 연구와 달리 조영달·구정화·이혁규(2009)의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유형에 따라(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북한이탈 가정) 각각의 요구를 심층 인터뷰하여 그 지원 요구사항을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는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하여 연구함으로써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생생하게 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유용한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다. 다음 장에서 언급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학교급 별로 재분류하여 어떠한 교육지원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유치원 수준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김혜숙·김관희(2008) 연구는 다문화가정 유아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이는 유치원생과의 면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나름으로 현장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설문 응답을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대상별(즉 학생, 학부모, 교사 자신)로 재분류하여 분석하였다.

2) 내용분석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급 별 교육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 시·도 교육청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계획서에 대한 내용분석이 실시되었다. 내용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차지하는 지면, 시간 량 또는 출현 빈도 등을 집계하여 분석하는데, 이러한 지면의 분량, 시간 량 또는 빈도 수 등이 중요한 집계체계가 될 수 있음은 이미 밝혀진 바이다(차배근, 1990 등). 본 연구에서는 16개 시·도 교육청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계획서를 수집하여, 프로그램의 빈도 수를 집계체제로 하여 파악하였다. 즉, 학교 급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인 ‘학교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실태 분석 연구(조영달·박윤경·이혁규, 2008)’에서 사용한 분석틀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학교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크게 프로그램의 목표 및 내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프로그램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는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이는 목표와 내용이, 프로그램의 운영방법보다는 교육지원 현황의 실태에 좀 더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설정된 분석틀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 현황 분석틀

| 분석 영역 | 하위 범주 | |
|------------------|--------------|-----------|
| 프로그램 목표 및 내용 | 다문화 이해 능력 증진 | |
| | 공동체 의식 함양 | |
| | 언어 교육 | 이중언어교육 |
| | | 한국어 교육 |
| | 문화 교육 | 외국문화이해 교육 |
| | | 한국문화적응 교육 |
| | 자아정체성 강화 | |
| 학교생활 적응(학업결손 보충) | | |

분석틀은 ‘프로그램 목표 및 내용’을 하위 범주에 따라 다문화 이해 능력 증진, 공동체 의식 함양, 언어 교육, 문화 교육, 자아정체성 강화, 학교생활 적응으로 나누었다. 이 중 언어 교육은 이중언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은 외국문화 이해 교육과 한국문화 적응 교육으로 다시 구분된다. 설정된 분석틀에 따라 해당 년도의 프로그램 빈도수와 전체프로그램 대비 비중이 분석되었으며 이를 통해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주로 운영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2009 년도와 2010 년도의 각 시·도 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현황을 비교하여 그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읽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분석틀의 각 하위범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 이해 능력 증진’은 인종, 성, 민족, 그리고 사회계층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불평등을 창출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학생들이 자민족 중심의 사고와 편견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배경 뿐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집단의 배경까지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 의식 함양’은 학생들이 서로 동질감을 갖고 협력하면서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인식을 갖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마음이 집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언어 교육’은 영어, 일어와 같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한국어와 함께 배우는 ‘이중언어교육’과 한국어에 서툰 다문화가정 학생이나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에게 한글 수업을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문화 교

육' 가운데 '외국문화 이해 교육'은 주로 우리나라가 아닌 다양한 나라들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며 '한국문화 적응 교육'은 다문화가정 학생과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자아정체성 강화'는 개인이나 집단, 민족이 공통된 역사, 문화적 배경을 가진다는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갖게 하며, 사회와 자아를 동일시하고 동시에 사회적 귀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이 자신의 모국이나 민족, 문화 등을 인정하고 한국 국적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도 포함된다. '학교생활 적응(학습 결손 보충)'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만족감을 느끼며 교사와 친구 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초 학력이 부진한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방과 후 학교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이 이에 포함된다.

3.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요구

3.1 교육지원 요구에 대한 학교급 별 특징

3.1.1 유치원

유치원급의 다문화교육 지원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교사 및 전문가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유치원 학생의 연령 및 발달단계로 미루어보아 그들의 요구를 직접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대상의 한계와 특징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도출된 유치원급에서의 교육지원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교육' 등 **한국생활의 적응과 관련된 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이재분 외(2009)의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들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32.1%)'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다. 이어서 '다문화이해능력 증진', '한국문화이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부모님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부모의 자녀교육관 수립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요구도 발견되었다. 또한 상담 프로그램, 사회성 교육 프로그램 등 자아정체성 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없지 않았으나, 앞서 언급된 부분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한국생활에의 적응'과 관련된 교육지원 요구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초등학교급 이상에서 학업성취 등과 관련된 요구가 부각되는 것과는 차별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유치원급에서는 학생들이 현재의 상황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다문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는 학생들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미숙한 언어능력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조영달·구정화·이혁규, 2009)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유치원급에서의 다문화교육적 지원에 대한 요구는 ‘보육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김혜숙·김관희(2008)의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보육과정과 생활 주제 중심으로 연계된 통합 프로그램**’과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소집단으로 하는 활동 프로그램**’ 등이 제안되고 있다. 이는 유치원 급에 적절한 다문화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보육과정과 생활주제가 연계되는 방향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육의 장으로서 유아교육기관은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보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치원급에서는 실생활의 바탕이 되는 의사소통, 기본생활, 신체 운동 등과 연계된 다문화교육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김혜숙·김관희, 2008). 이러한 측면은 김정원 외(2005)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유치원급에서의 다문화교육이 ‘보육의 장’이면서 동시에 ‘친구 사귀기의 장’으로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3.1.2 초등학교

기존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도출된 초등학교 급에서의 교육지원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단 **초등학교 급에서는 유치원급에서의 요구사항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에 대한 여전히 높은 요구가 그것이다.** 학생들은 ‘한국문화 이해교육’을 가장 높게 원하고 있으며, 교사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문화 이해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이재분 외, 2009). 이는 초등학교 급에서도 여전히 학생들에게 한국생활의 효과적인 적응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학업과 관련된 요구**’가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이재분 외(2009)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문화와 생활적응교육’에 이어 ‘외국문화 이해 교육’, ‘공동체 의식 함양 프로그램’, ‘학교생활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순서대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학생생활 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에는 ‘교과학습 및 방과후 학습’에 대한 요구와 학력신장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학생들이 학업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요청한다는 특징이 초등학교 급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유치원 수준에서는 유치원 아동들에 대한 보육의 측면에서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이 지적되었던 반면에,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이를 넘어 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과 도우미 등에 대한 요구가 등장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요구는 학생에서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 모두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다(조영달·구정화·이혁규, 2009; 조영달·박윤경·이정우, 2007; 이재분 외, 2009).

셋째, **초등교사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자아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사들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상담, 진학교육, 교우관계와 관련된 사회성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이재분 외, 2009). 이는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의 인생계획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교사들의 인식에서부터 도출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3.1.3 중학교

첫째, 기존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 따르면, ‘한국문화 교육’과 ‘생활적응 교육’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나타나지만,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는 우선 순위에서 다소 떨어진다**. 이재분 외(2009)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요구 순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즉 ‘한국문화 및 생활적응 교육’ - ‘경제적 지원’ - ‘학교생활 적응’ - ‘한국어 교육’ - ‘외국문화 이해교육’ - ‘이중언어 교육’ - ‘다문화 이해능력 증진’ - ‘자아정체성’ 순이다. 이는 유치원 수준과 초등학교 수준에서 언어적·문화적 적응이 크게 요구되는 것에 비하여, 중·고등학교 급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언어능력과 같은 기초적인 소양에 대한 관심이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¹⁾

둘째, **‘차별적인 인식의 교정’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고 있다**. 조영달·박윤경·이정우(2007)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은 중학교급에서 ‘친구들의 차별적인 인식교정’과 ‘교사의 차별적 인식교정’을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차별적인 인식을 교정하는 것은 다문화 교육의 목표 자체이기도 하며, 중학교급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요구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유·초등급에서의 차별이 무지나 서로에 대한 낯설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면, 중학교급 이상에서의 차별은 무지나 낯설음을 넘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춘기가 시작되는 중학생 시기에 경험하

11) 이재분 외(2009)의 연구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두 학교급별 학생의 구분을 두지 않고 통합적으로 교육적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연구 자료를 근거로하여 중학교 수준에서만 특수하게 나타나는 요구사항을 추출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단락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급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중학교급에서부터 언어교육에 대한 요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은 분명해보인다.

게 되는 교사나 동료 학우의 차별적인 태도는 감수성이 예민해진 학생에게 그들의 세계관이나 인생관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도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진학 및 장기진로와 관련된 교육적 요구가 크게 나타난다. 특히 조영달·구정화·이혁규(2009)의 연구에서는 ‘장기적 시각에서의 진로 지도 정책’에 대한 요구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중학교에 들어서면서부터 대학진학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이러한 고민은 궁극적으로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중학교 수준에서 이러한 진학 및 진로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은 다문화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진로 및 직업교육에 대한 부분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넷째, 학업과 관련된 요구가 본격화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영달·박윤경·이정우(2007)의 연구에 따르면 중학교급에서 ‘학교수업의 보충’이나 ‘학업 도우미’에 대한 요구가 등장하고 있다. 이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본격화되는 진학 및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학업성취’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학교급에 들어서면서부터 학업성취, 다시 말해 성적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교육적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3.1.4 고등학교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교육적 지원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급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적인 요구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의 한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실시된 연구들 가운데 고등학교급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요구사항을 분석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급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많지 않았음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현재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수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제한적이거나 고등학교급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요구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조영달·박윤경·이정우(2007)의 연구가 있다. 이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은 고등학교급의 다문화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들의 차별적 인식 교정’ - ‘경제적 지원’ - ‘교사의 차별적 인식 교정’ - ‘한국어 및 한국문화이해 교육’ - ‘교과서 편견 수정’ - ‘학교수업보충’ - ‘문화적 다양성 장려 분위기 조성’ - ‘시민단체의 지원’ - ‘나이와 학년 불일치 문제 해결’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앞서 중학교급에서 살펴본 요구사항과 대동소이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미묘한 차이가 있음도 알 수 있다. 즉, 고등학교급에서도 차별적

인식의 교정과 더불어 학업성취 지원요구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동시에 요구 사항이 좀 더 구체화되기도 하고 더불어 학업과 관련된 사회환경에도 관심을 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 연구의 경우에, ‘교과서 편견의 수정’이나 ‘나이와 학년의 불일치’를 지적한 점은 구체화된 요구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문화적 다양성의 장려 분위기’와 ‘시민단체의 지원’ 등을 지적한 것은 관심의 대상이 넓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3.2 교육지원 요구에 대한 학교급간 비교

지금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에서 나타나는 다문화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를 각 학교급별로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한 것이 아래 제시된 <표 3>이다.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교급별 교육지원 요구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3. 교육지원 요구: 학교급간 비교

| | 교육지원 요구사항 |
|------|---|
| 유치원 | -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교육’에 대한 요구(한국생활 적응) - ‘보육의 장’으로서의 다문화교육을 요구 |
| 초등학교 | -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교육’에 대한 요구 - ‘학업’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 ‘자아정체성 강화 교육’에 대한 요구 |
| 중학교 | - ‘한국문화 교육’에 대한 요구 - ‘차별적 인식에 대한 교정’의 요구 - ‘진학 및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 - ‘학업’과 관련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 |
| 고등학교 | - 중학교급과 대동소이 함(학업, 진로, 차별교정) - 요구 사항이 구체화되고 교육환경에도 관심 |

먼저 모든 학교급에서 나타나는 다문화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는 바로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교육’등 한국생활에의 적응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언어적 측면과 문화적응의 측면이라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언어교육 및 문화적응에 대한 요구’는 유치원급에서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급에 이르기까지, 다문화교육

적 지원의 바탕을 형성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적용 교육은 각 학교급 별로 그 실행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치원급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요구는 ‘보육의 장이자 친구 사귀기의 장’으로서의 언어와 문화교육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유아기 학생들에 대한 다문화교육 지원은, 이들이 아직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발달단계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문화교육에 비해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은 감소하고 이는 학교생활 적응의 측면 뿐만아니라 학업이나 자아정체성과도 관련된 요구사항이라 하겠다.

유치원급을 지나 초등학교급에 이르면, 처음으로 ‘학업과 관련된 요구’가 등장하였다. 이는 ‘보육’에 초점을 두던 유치원급의 교육적 관심이 점차 ‘학업’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급에서 특징적인 것은 ‘자아정체성’과 관련된 다문화교육적 요구가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유아기를 지나 초등학교급에 이르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자신들의 자아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게 되며, 동시에 혼란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는 초등학교 급에서 ‘자아정체성’과 관련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초등학교 급을 지나 중학교 급에 이르면, ‘학업관련 요구’와 함께 ‘직업·진로와 관련된 요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중등학교에 진입하면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자신의 장래와 일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중학교 급에서 나타나는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요구는 학업과는 깊은 상관관계를 지니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고등학교 급에서의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이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음에 비추어, 중학교 급의 특징적인 측면이라 하겠다.

중학교 급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다문화교육적 지원에 대한 또 하나의 특징적인 요구는 ‘차별적 인식의 교정’이라 할 수 있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에 해당하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자신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이는 중학교 급에서 특히 ‘차별적 인식 교정’ 또는 ‘다문화 이해능력’과 관련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교육적 요구는 고등학교 급에 이르러 더욱 강하게 나타나게 되지만,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볼 때 중학교 급과 고등학교 급에서의 교육지원에 대한 요구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급에서는 각각의 요구들이 구체화되면서도 사회환경적 측면에서의 요구와도 연결됨을 위에서 살펴본 바 있으며, 이는 고등학교 급의 특징적인 측면이라 하겠다.

4.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현황

4.1 교육지원 현황에 대한 학교 급별 특징

다음은 16 개 시·도 교육청에서 2009 년과 2010 년에 실시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계획서를 각 학교급 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2009 년 16 개 시도 교육청은 전체적으로 262 개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0 년에는 269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각 학교급 별 분석은 다음과 같다.

4.1.1 유치원

아래 제시된 <표 5>는 16 개 시·도 교육청에서 2009 년과 2010 년에 실시된 유치원 급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이다. 유치원급에서 드러난 교육지원 현황의 특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현황 : 유치원

| 유치원 | | 2009 년도 | | 2010 년도 | | |
|---------------------|-----------|---------|------|---------|------|------|
| | | 빈도 | % | 빈도 | % | |
| 다문화이해능력증진 | | 6 | 31.6 | 4 | 23.5 | |
| 공동체 의식 함양 | | 1 | 5.3 | 1 | 5.9 | |
| 언어교육 | 이중언어교육 | 1 | 5.3 | 0 | 0.0 | 17.6 |
| | 한국어교육 | 7 | 36.8 | | | |
| 문화교육 | 외국문화 이해교육 | 0 | 0.0 | 0 | 0.0 | 23.5 |
| | 한국문화적응교육 | 2 | 10.5 | | | |
| 자아정체성강화 | | 1 | 5.3 | 2 | 11.8 | |
| 학교생활적응(학력신장) | | 1 | 5.3 | 2 | 11.8 | |
| 진로 직업 교육 | 입시관련 교육 | 0 | 0.0 | 1 | 5.9 | 5.9 |
| | 진로교육 | 0 | 0.0 | | | |
| 합계 | | 19 | | 17 | | |

먼저,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은 매우 낮은 비중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 년도에 전국의 교육청에서 계획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262 개중 19 개(7.2%)에 불과하였으며, 그 중 대부분이 한국어 교육(7 개, 36.8%)과 다문화 이해능력 증진(6 개, 31.6%)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 외 공동체의식 함양(1 개), 이중언어교육(1 개), 한국문화적응교육(2 개), 자아정체성 강화(1 개), 학교생활적응(학력신장)(1 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다. 2010 학년도 자료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전체 프로그램 269 개 중, 17 개만이 유치원 학생을 대상으로 함). 프로그램의 구성 역시 2009 년과 비슷하다. 물론, 2010 년의 경우에 한국문화 적응교육이 조금 강조된 것은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유치원급에서 다문화교육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점은 유치원 급 다문화교육의 특징이자 동시에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2010 년에는 2009 년도에 비해 오히려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려는 프로그램 수가 감소한 것(19 개에서 17 개로)을 통해서도 이러한 실상은 잘 드러난다.¹²⁾ 특히 이 중에는, 유치원 대상 프로그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시·도 교육청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은 유의해야 할 사항의 하나이다.

4.1.2 초등학교

아래 제시된 <표 5>는 2009 년과 2010 년도 시·도 교육청의 초등학교급 다문화교육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이다.

첫째, 초등학교급에서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다수 운영되고 있었다. 2009 년도에 전국 16 개 교육청에서 계획된 프로그램 262 개 중 122 개 프로그램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46.5%). 2010 년도에 시·도 교육청이 마련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총 269 개인데, 이 중 98 개 프로그램(36.4%)이 초등학교 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도 교육청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초등학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이 초등학교에 가장 많이 재학 중이라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둘째, 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교육 정책 목표 가운데에서 주로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중심이 되어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 이해능력 증진

12) 그러나 프로그램의 비중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다문화이해능력증진과 한국어 교육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 2010년에는 여러 다문화교육 정책 목표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29.5%, 2010년 25.5%)과 ‘학력신장과 학교생활적응(2009년 19.7%, 2010년 27.6%)’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어교육(2009년 16.4%, 2010년 10.2%), ‘한국문화 적응(2009년 14.8%, 2010년 8.2%) 등이 중요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5.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현황 : 초등학교

| 초등학교 | | 2009년도 | | 2010년도 | | | |
|---------------------|-----------------|--------|------|--------|------|------|------|
| | | 빈도 | % | 빈도 | % | | |
| 다문화이해능력증진 | | 36 | 29.5 | 25 | 25.5 | | |
| 공동체 의식 함양 | | 6 | 4.9 | 9 | 9.2 | | |
| 언어교육 | 이중언어교육 | 1 | 0.8 | 17.2 | 3 | 3.1 | 13.3 |
| | 한국어교육 | 20 | 16.4 | | 10 | 10.2 | |
| 문화교육 | 외국문화 이해교육 | 3 | 2.5 | 17.3 | 2 | 2.0 | 10.2 |
| | 한국문화적응교육 | 18 | 14.8 | | 8 | 8.2 | |
| 자아정체성강화 | | 11 | 9.0 | 7 | 7.1 | | |
| 학교생활적응(학력신장) | | 24 | 19.7 | 27 | 27.6 | | |
| 진로 직업 교육 | 입시관련 교육 | 0 | 0.0 | 2.5 | 2 | 2.0 | 7.1 |
| | 진로교육 | 3 | 2.5 | | 5 | 5.1 | |
| 합계 | | 122 | | 98 | | | |

셋째, 공동체 의식 함양, 이중언어교육, 외국문화 이해교육, 자아정체성 강화,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비중은 낮은 수준이었다. 2009년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면, 공동체 의식 함양(4.9%), 이중언어교육(0.8%), 외국문화 이해교육(2.5%), 자아정체성 강화(9%), 진로·직업교육(2.5%)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소수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2010년의 경우역시 마찬가지였다(공동체 의식 함양(9.2%), 이중언어교육(3.1%), 외국문화 이해교육(2.0%), 자아정체성 강화(7.1%), 진로·직업교육(7.1%)).

특히 자아정체성 형성에 있어 초등학교 시기는 매우 결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프로그램의 취약은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유치원 시기와는 달리 초등학교에 들면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 역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체와 타인과의 관계, 사회 속의 존재감 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아정체성 형성이 더욱 중요한 과업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초등학교 급의 경우에도, 그 프로그램의 구성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치원급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 이해능력 증진’과 ‘학력 신장과 학교생활적응’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고 다른 프로그램들이 낮은 비중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일면, 초등학교 다문화교육 정책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며, 더구나 초등학생의 발달단계상의 특징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4.1.3 중학교

아래 제시된 <표 6>은 2009 년과 2010 년도 시·도 교육청의 중학교 다문화교육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이다. 중학교급 다문화교육 현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표 6.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현황 : 중학교

| 중학교 | | 2009 년도 | | | 2010 년도 | | |
|---------------------|-----------------|---------|------|------|---------|------|-----|
| | | 빈도 | % | | 빈도 | % | |
| 다문화이해능력증진 | | 25 | 34.7 | | 26 | 30.6 | |
| 공동체 의식 함양 | | 3 | 4.2 | | 9 | 10.6 | |
| 언어교육 | 이중언어교육 | 1 | 1.4 | 11.1 | 2 | 2.4 | 8.5 |
| | 한국어 교육 | 7 | 9.7 | | 6 | 7.1 | |
| 문화교육 | 외국문화 이해교육 | 2 | 2.8 | 16.7 | 0 | 0.0 | 8.2 |
| | 한국문화적응교육 | 10 | 13.9 | | 7 | 8.2 | |
| 자아정체성 강화 | | 6 | 8.3 | | 7 | 8.2 | |
| 학교생활적응(학력신장) | | 17 | 23.6 | | 21 | 24.7 | |
| 진로 직업 교육 | 입시관련 교육 | 0 | 0.0 | 1.4 | 2 | 2.4 | 8.3 |
| | 진로교육 | 1 | 1.4 | | 5 | 5.9 | |
| 합계 | | 72 | | | 85 | | |

첫째, 중학교급에서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2009년도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계획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중학교급을 대상으로 한 것은 72개(27.4%)로, 초등학교 122개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도의 경우 이보다 다소 늘어난 85개(31.5%) 프로그램이 중학교급에서 계획되어 있었다(초등학교는 98개). 현재 초등학교 급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앞으로 중학교로 진입할 것을 예상한다면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욱 많아져야 할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중학교급에서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중요한 특징은 ‘다문화 이해능력 증진(2009년 34.7%, 2010년 30.6%)’과 ‘학교생활적응과 학력신장(2009년 23.6%, 2010년 24.7%)’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은 점은 초등학교 급에서와 유사하나, 언어와 문화교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점은 유의할 만하다. 특히 학력신장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비중이 크게 늘었음은 한국 사회의 학교교육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여겨질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들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구성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 이해능력 증진과 학교생활적응 프로그램의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가정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들(예컨대, 다문화 체험 주간 등)이 주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가 초등학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한편으로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교육적 지원이 초등학교급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중학교급에서 진로직업교육이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의 경우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은 단 1개만 계획되어 있으며, 2010년의 경우 다소 늘어난 7개(8.3%)가 계획되어 있지만 이는 초등학교 급에서의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과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중학교 급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에 따라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중학교 급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업진로교육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 하겠다. 또한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직업교육도, 체계적인 프로그램 없이, 개별적인 상담을 통한 진로교육이나 고등학교 진학 설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는 더 더욱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급에서는 일회적인 다문화 관련 행사프로그램과 연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행사주간 지정, 다문화 체험 캠프와 같은 일회적인 행사 프로그램 뿐 아니라 교과 수업 내용에 다문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학력 신장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중학교 급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지니는 특징적인 점이며,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측면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뒤에서 살펴볼 고등학교 급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램과 구별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4.1.4 고등학교

아래 제시된 <표 7>은 2009 년과 2010 년도 시·도 교육청 고등학교 다문화교육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7.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현황 : 고등학교

| 고등학교 | | 2009 년도 | | | 2010 년도 | | |
|----------------|-----------|---------|------|------|---------|------|------|
| | | 빈도 | % | | 빈도 | % | |
| 다문화 이해 능력 증진 | | 21 | 42.9 | | 23 | 33.3 | |
| 공동체 의식 함양 | | 3 | 6.1 | | 6 | 8.7 | |
| 언어교육 | 이중언어교육 | 0 | 0.0 | 6.1 | 2 | 2.9 | 10.1 |
| | 한국어 교육 | 3 | 6.1 | | 5 | 7.2 | |
| 문화교육 | 외국문화 이해교육 | 1 | 2.0 | 16.3 | 1 | 1.4 | 10.1 |
| | 한국문화 적응교육 | 7 | 14.3 | | 6 | 8.7 | |
| 자아정체성 강화 | | 5 | 10.2 | | 9 | 13.0 | |
| 학교생활 적응(학력신장) | | 7 | 14.3 | | 12 | 17.4 | |
| 진로 직업 교육 | 입시관련 교육 | 0 | 0.0 | 4.1 | 2 | 2.9 | 7.2 |
| | 진로교육 | 2 | 4.1 | | 3 | 4.3 | |
| 합계 | | 49 | | | 69 | | |

첫째, 고등학교급에서 계획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에 비해 훨씬 적었으며, 중학교급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었다. 2009 년도 전국 교육청 프로그램 계획서에 나타난 262 개 프로그램 가운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49(18.7%)개에 불과하였으며, 2010 년의 경우 다소 증가하여 269 개 프로그램 가운데 69 개(25.6%)를 차지했다. 이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가 많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아직은 고등학교 급에서는 다문화교육 지원프로그램이 충분히 계획, 실행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초등학교

에 주로 재학중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빠른 시일 내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될 것을 예상한다면, 고등학교 급에서의 다문화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대비와 고려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둘째, 고등학교 급에서는 프로그램의 분포에서 ‘다문화 이해능력 증진’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9년에는 21개로 전체의 42.9%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다문화 이해능력과 관련되어 이루어졌다. 2010년 역시 23개(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초등이나 중학교 급에 비해 특징적인 점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다문화 가정 학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학생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란 점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계획된 프로그램 대다수가 다문화가정 학생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주로 전체 또는 일반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역시 고등학교 급 다문화교육 지원프로그램의 중요한 특징이다.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다문화 이해 능력 증진 프로그램’은, 그 내용상으로도 학교 공식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셋째, 고등학교급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실제로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은 극히 낮은 수준이었다. 2009년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계획된 진로직업교육은 2개(1.1%)에 불과했으며, 2010년에는 다소 증가한 5개(7.2%)가 계획되어 있었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으며, 졸업 후 바로 직업 세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고등학생에게 진로·직업교육은 매우 절실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급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마저도 주로 ‘상담주간’이나 ‘다국어 입시 설명회’ 등과 같은 행사적 성격의 일회성 프로그램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고등학교 급에서 실시 중인 다문화교육 지원 프로그램들은 주로 일회적 행사 프로그램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다문화 행사주관을 지정하거나 다문화 이해의 날, 체험캠프와 같은 행사들이 프로그램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아직 고등학교 급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고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4.2 교육지원 현황에 대한 문제점 분석

앞에서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각 시·도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다문화 교육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비교·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각 학교 급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빈도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특히 다문화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급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가장 많은 프로그램(2009년 122개 → 2010년 98개)이 계획, 운영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72개 → 85개), 고등학교(49개 → 69개), 유치원(19개 → 17개)의 순이었다. 이는 아래의 2009년 및 2010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비중을 나타낸 다음 <표 8>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앞서서도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초등학교 급의 학생들이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이동할 것을 고려한다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 급의 다문화교육 지원 방안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 8. 2009년 및 2010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학교급별 비중

| 2009년도(262개) | | | | 2010년도(269개) | | | |
|--------------|-------|-------|-------|--------------|-------|-------|-------|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7.2% | 46.5% | 27.4% | 18.7% | 6.3% | 36.4% | 31.5% | 25.7% |

둘째,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다문화가정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전체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급에서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이해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달리 보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 급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현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 급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가 적은 점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들 다문화가정 학생이 곧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진입할 것을 고려하면,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학교 급에 따라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그 대상이 특정화되지 않았다는 점과도 연결된 것이라 하겠다.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목표 및 대상설정을 명확히 하지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한 부분이다.

셋째, 다문화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학교 급별 특성과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또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각 학교 급에서 공히 다수의 프로그램이 ‘다문화 이해능력 증진’과 ‘한국어교육’ 및 ‘학교생활적응(학력신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동체 의식 함양, 이중언어 교육, 외국문화 이해교육, 자아정체성 강화,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학교 급에 따라 특징적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급에서 그 정도가 더욱 심한 것으로 여겨진다.

5.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학교 급별 교육지원 방안의 제안

5.1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학교 급별 교육지원의 특성 모형

앞 장에서 이루어진 분석을 통하여, 다문화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학교 급에 따른 체계적 고려 없이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당사자들의 지원요구나 학생의 성장적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가 부족한 채로 그 내용이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성장해나감에 따른 학교 급별 특성과 학생 및 교육 당사자들의 지원요구 그리고 실제 지원되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사이에 일종의 불일치(mismatching)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동시에 학교 급별 다문화교육 지원이 특성화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지원요구와 실태 사이의 불일치에 대한 극복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지원요구와 학교 급별 성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해 각 학교 급별로 강조되어야 할 점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9>와 같다.

먼저,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능력 증진’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은 전 학교 급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학교 급에 따라 강조점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는 생활적응을 위한 내용에 강조점이 있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교과 및 학력 신장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에서는 자아정체성과 차별적 인식에 대한 교정을 위한 다문화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는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사춘기를 시작하는 초등학교의 성장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서 차별적 인식 교정의 경우는 한국사회의 발전과 교육의 정의를 위하여 일반학생에게도 실시해야 할 다문화교육의 중요한 내용인바, 교사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시기에서는 차별적 인식교정과 관련된 교육이 현재보다 크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시기에는 학생 간의 차별적인 발언이나 행동 등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의 정체성 형성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학교 급에서는 생활적응과 자아정체성 뿐만 아니라, 학업고민과 진로직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이 추가되고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고등학교 진학에서 이미 인문계와 실업계 및 특성화 계열로 나누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진로와 직업의 분화 과정에서 학업성취 역시 그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실질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직업진로교육’은 중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충분히 자신의 소질과 능력에 대해 고민해보고 자신의 직업 및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급은 지원양상에서는 중학교 급의 경우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으나,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더욱 구체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지원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언어와 문화교육은 학업 성취의 성장이나 교과학습과 깊이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자아의 정체성 형성 역시 노동시장의 참여와 연관된 진로와 직업의 측면 뿐만 아니라 곧 참정권을 부여받을 한국사회의 능동적 시민의 측면도 깊이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급에서는 인지적 성장 측면에서 보면, 자신과 사회 및 타인을 연결시키고, 구체와 추상을 오가면서 종합적으로 사고하게 될 것이므로, ‘차별적 인식 교정’이나 ‘자아 정체성 형성’ 및 ‘진로직업 교육’에서도 이러한 측면이 고려되어 교육내용이 구성되고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학교 급별 특성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하나는, 이와 같은 계열화된 교육지원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선형적 계속성의 원칙과 같은 교육과정 구성원리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 시기에 특정 프로그램 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일종의 학교 급별 교육지원 모형(각 학교 급별로 강조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나타낸 것으로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제안)은 단지 하나의 논의를 위한 대안일 뿐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와 결론들이, 기존 연구의 미비에 따른 논증적 불충분함을 포함할 가능성 때문이다.

표 9.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 급별 교육지원 제안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 0 다문화이해능력 증진 /공동체의식 함양 | | | |
| a. 언어교육 a. 문화교육 a. 일반생활 적응 | a. 언어교육 a. 문화교육 a. 학교생활 적응 (교과고려) b. 자아정체성 교육 c. 차별적 인식교정 (학교생활 중심) | a. 교과와 연계된 언어/문화교육 a. 학교생활 적응 (학력 신장에 중점) b. 자아정체성 강화 c. 차별적 인식교정 (학교교육 중심) d. 일반 진로직업교육 | a. 학력/교과와 연계된 언어/문화교육 a. 구체화/특성화된 학력신장 교육 b. 자아정체성 심화 c. 차별적 인식 교정 (학교교육과 사회연계) d. 구체적 진로직업 교육 (대학직업노동) |

이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각 학교급별로 나누어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의 목표 및 내용, 교육지원상의 유의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5.2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학교 급별 교육지원 방안의 목표와 개요

5.2.1 유치원

유치원급에서 요구하는 다문화교육 지원과 실제 교육지원의 현황 그리고 발달단계를 고려한 결과, 본 연구는 유치원급에서의 다문화교육 지원 목표를 ‘공동체적 소통과 문화적 상호이해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 시기는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들이 삶의 환경으로서의 한국문화와 접하며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능력을 습득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유치원급에서는 공동체적 소통과 상호이해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다문화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될 수 있으며, 생활 속에서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습득하고, 삶의 터전으로서 한국문화에 접촉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 등이 하위목표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설정된 목표에 따라,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문화 이해능력 증진 프로그램’ 정도가 유치원급에서의 다문화교육 지원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치원급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지원이 필요하되 이는 학생의 생활과 흥미를 중심으로 보육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학교 급에서 이루어질 언어교육의 수준이 주로 교과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유치원 급에서는 생활 영역과 관련하여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문화 교육은 학생들의 흥미를 중심으로 시작하되 지적인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주위의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며 한국의 문화와 접하게 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이와 단순히 접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접촉을 통해서 문화에 대한 지적인 감수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교육은 유치원급의 다문화가정 학생과 더불어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될 필요가 있다. 학부모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습득 정도에 따라 학생의 한국어 습득 능력 및 한국문화 접촉 기회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5.2.2 초등학교

초등학교 급에서 요구하는 다문화교육 지원과 실제 교육지원의 현황 그리고 발달단계를 고려한 결과, 본 연구는 초등학교 급에서의 다문화교육 지원 목표를 ‘공동체적 소통과 사회 속의 자아성장’으로 설정하였다. 이 시기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이며,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기초적 소양을 기르는 시기이다. 이러한 초등학교 급에서는 또래 및 교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문화의 공유

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정 이외의 사회집단에서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또래 집단과의 동질감을 경험하는 것이 공동체 의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설정된 목표에 따라, 초등학교급 에서의 다문화교육 내용으로서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교육’, ‘학교생활적응(교과고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자아정체성 교육’ 및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차별적 인식교정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먼저 언어교육지원을 위해서는 학교의 교과와 연결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 유치원 수준의 한국어 교육이 생활영역과 관련되어 있다면,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질 언어교육의 수준은 교과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언어교육이 학교생활 적응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교육지원의 두 번째 유의점은 한국어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본국 언어의 강조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한국어가 미숙하고 학업성취가 부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강점을 지닐 수 있다. 이점은 스스로도 인지하여야 할 것이지만, 학교교육에서도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또래 및 교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기존의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근처의 유적지 및 명소 방문을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관람이나 방문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5.2.3 중학교

중학교 급에서 요구하는 다문화교육 지원과 실제 교육지원의 현황 그리고 발달단계를 고려한 결과, 본 연구는 중학교 급에서의 다문화교육 지원 목표를 ‘학업 성취 보정과 미래지향적 진로교육’으로 설정하였다. 중학교 시기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한국어, 한국문화 및 학교적응 등에 더하여 공동체적 삶에 대한 기초가 마무리되면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학업성취에 신경 쓰면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바탕으로 하고, 중등학교의 학생으로서 교과를 중심으로 학업성취에 주의를 기울이며,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설정된 목표에 따라, 중학교 급에서는 다문화교육 내용으로서 교과의 학

력(學力) 성장을 도와주는 ‘학교생활적응 교육’을 중심으로, ‘진로직업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격적으로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교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자아정체성 형성과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교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교육지원 프로그램 역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여기서 언급된 차별적 인식교정과 관련된 교육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긍지와 정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반 가정 학생들의 다문화 이해를 증진’하고, 학생들이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이해’하며, ‘다문화(인종, 민족, 성, 계층 등)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과 동시에, 일반가정 학생들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활동 또한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탐색하고 개발’하려는 것인데, 이때에는 주로 다문화가정 학생이 지니고 있는 강점인 다문화적 배경요인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 국적 여성의 국제결혼가정 자녀일 경우 일본어 회화 등의 특기적성 교육을 통해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듀이(Dewey, J.)에 따르면, 경험과 흥미는 교육의 시작이자 지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5.2.4 고등학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이루어진 분석을 토대로, 고등학교 급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다문화 교육지원의 목표를 ‘학업성취수준의 향상과 심층적 진학 및 진로 교육의 제공’으로 설정하였다. 고등학교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학교의 학업이라는 과제와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 발판을 마련해야하는 발달과업을 마주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급에서의 다문화 교육지원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성취수준을 향상시키는 것과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사회 진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진로·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여기서 학업성취수준의 향상이라는 목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한국의 일반학생들에 비해 다소 뒤떨어진다는 현실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한국의 사회문화적 여건에 익숙하지 못하고, 언어적으로도 장애요소를 가진 채,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한국 학생들과의 학업 경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고등학교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서 학업성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대학진학이 가지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업성취에 대한 지원은 곧 대학진학에서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는, 학업성취에 관한 교육적 지원이 진로 및 진학지도에 관한 교육적 지원과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들어온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경우나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는 사회적·문화적 적응을 어느 정도 달성할 확률이 높은 것에 비하여, 언어적·문화적인 적응이 어려운 고등학교시기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경우(예, 중도입국 등)는 학업적인 성취에서 뒤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등학교 급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원활한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지도를 위해서는, 학생집단에 따른 언어·문화·사회적 적응의 난점을 먼저 살피고,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대해 집단별로 차별화된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진로 및 진학 교육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겪는 학업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 및 강점의 요소를 부각시키고 동시에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경우, 그들이 담지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쉽게 습득할 수 없는 언어적인 능력 등으로 인하여, 일반 한국 학생들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폭넓은 진로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진로 및 진학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에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과 동시에 학생 스스로 반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급별 교육지원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먼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 급별 교육지원 요구사항을 살펴보고, 그런 다음 실제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의 과정에서 각 성장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주요 과업이 변화하듯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지원의 요구사항도 학교 급에 따라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현황은 학교급과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과 현재의 교육지원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생애 주기 및 성장 과업, 요구사항, 학교 급의 특성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학교 급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 고려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급에서는 ‘공동체적 소통과 문화적 상호이해의

바탕을 마련,' 초등학교 급에서는 '공동체적 소통과 사회 속의 자아성장,' 중학교 급에서는 '학업 성취 보정과 미래지향적 진로교육,' 및 고등학교 급에서는 '학업성취수준의 향상과 심층적 진학 및 진로 교육의 제공'을 중요 목표로 제안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차별화된 학교 급별 교육지원 방안은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시작과 그 장(場)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정책화한 것도 최근의 일¹³⁾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가 제시한 방안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재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지원의 초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각 학교 급별로 비슷한 형태의 일률적·단편적인 교육지원이 아니라, 각 학교 급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의 생애 과업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는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하여서는 깊이 있는 세분화된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동시에 교육청 사이의 상호 협력과 정보공유가 긴요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한국 다문화교육의 성장과, 다문화 가정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다문화적 관점과 자아의 성장을 북돋우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¹⁴⁾.

13) 하인즈 워드라는 미국 미식축구 선수(MVP)가 자신의 어머니의 나라인 한국을 방문한 후인 2007년경 정부는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세우고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 영역을 반영하려 노력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각 교육청이나 개별 학교 및 사회종교단체 등에서는 다문화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도 사실이다.

14) 본 논문은 2011. 5. 31. 투고되었고, 2011. 6. 30.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2011. 7. 15. 게재가 확정되었음.

❖ 참고 문헌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8학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2010). 2009학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요청 다문화 이해교육 연구학교 운영보고서.

권민혁 (2008). “다문화 사회에서의 초등체육교육의 방향 및 과제”.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4(3), 165-174.

권순희 (2008). “내용 분석과 재구성을 통한 초등학교 국어교과서 운용 방안”. 한국초등국어교육, 36, 5-40.

김정원 외 (2005).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혜숙, 김관희 (2008). “어린이집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17(4), 129-142.

박광재 (2007). “도덕과 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 수업방안”. 윤리철학교육, 7, 100-117.

박현호, 강운선 (2009). “제7차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다문화 교육 내용 분석”. 학교교육연구, 5(1), 57-83.

신문승, 강충열 (2009). “초등학교 창의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초등교육연구, 113-135.

원진숙 (2009).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 한국초등국어교육, 40, 157-188.

이정연 (2008). “다문화 사회 속의 초등무용교육: 변화를 위한 모색”.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6(3), 181-192.

이재분 외 (2009). 학교에서의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실태 및 요구조사. 한국교육개발원. 서울.

조경민 (2010).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7차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내용분석”. 역사교육, 114, 47-92.

조영달, 박윤경, 이정우 (2007). 다문화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인식 조사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조영달, 박윤경, 이혁규 (2008). 학교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실태 분석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조영달, 구정화, 이혁규 (2009). 다문화가정 학생 DB 현황 및 유형별 교육 요구 분석. 교육

과학기술부.

조응태 (2006).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위한 다문화 도덕 교육”. 도덕교육학 연구, 7(1), 41-67. 한국도덕교육학회.

추병완 (2009). “초등 도덕과에서 다문화교육의 실천 방안”. 초등도덕교육, 31, 179-198.

차배근 (1990). 사회과학 연구방법. 세영사. 서울.

<Abstract>

School Policy For Multicultural Educ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CHO Youngdal, KIM Jaeguen, PARK Yunkyung, PARK Sunun

This study aims to discover the demand and present condition of educational support for the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m, it also aims to suggest the educational support plan according to the school levels. For this purpose, analysis of the present educational support program for the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has been conducted. On top of that, analysis of the education support demand according to the school levels, and investigation on the present condition of educational support has been conducted as well. Educational support plan according to the school levels for the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has been suggested based on these findings.

Suggestion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At the kindergarten level, language education and culture education are required to lay the groundwork for the mutual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as a member of society. At the elementary school level, general objective of educational support plan is similar to that of kindergarten level. But for the educational contents, school adaptation education at the elementary school level is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mutual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in the frame of school institution, as well as the language education and culture education. At the middle school level, general career-education and identity education need to be emphasized. At the high school level, educational support related to academic achievement, as well as more detailed career-education, is required. By suggesting these differentiated educational support plan according to school levels, multicultural education of Korean society will be able to approach the school education and the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one step closer.

【Keywords】 multicultural education, educational support plan, school level, communication and mutual understanding, identity, career education

